

“끝난 줄 알았는데”…장례 두 번 치르는 유가족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 현장

참사 1년8개월 지났지만 미완…1620점 추가 발견
“호미·포대 들고 직접 발굴…지금도 매일 현장 지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년8개월이 지난 지금도 무안국제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참사 직후 수습이 끝난 것으로 알았지만, 뒤늦게 유해 추정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난 4월부터 재수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미 장례를 치른 가족의 유해가 다시 발견되면서 사실상 ‘두 번째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유가족도 있다.

13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시작된 유해 재수색은 전체 828개 그리드 가운데 724개를 마쳐 87.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유해 추정물 1620점과 유류품 851점이 발견됐다.

재수색은 공항 내·외부 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항 내 둔덕과 담장 주변, 진입동 서·동편과 주변, 집수정 등이다.

유해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정밀수색을 한다. 흙을 10~30cm가량 굴토한 뒤 5~8mm 크기의 체로 걸러내고, 식별 대상이 나오면 군 유해발굴단과 경찰 과학수사

인력이 감식한다.

발견된 유해 추정물은 현장에서 기록한 뒤 별도로 보관하고 매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 DNA 감정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에게 인계된다. 유류품은 별도 보관 후 제주항공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한다.

수색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항공 유 오염지역에서 작업자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5월8일부터 6월21일까지 수색이 중단됐고, 폭염으로 지난 8월3일부터 7일까지도 작업이 멈췄다.

현재는 폭염을 피해 오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매일 현장을 지키고 있다. 딸과 사위, 손녀와 손자 등 가족 4명을 잃은 여흥구씨(74)는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직접 포대와 호미를 들고 나가 발굴했다”며 “지금은 유가족들이 와서 지켜보고 군·경찰·소방에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와 유류품을 수습하는 재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여씨는 “처음에는 여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4월 유가족들이 지켜보면서 다시 수색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유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가 나오고 다리까지 발견됐다”며 “많이도 나왔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색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가족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는 만큼 마지막 한 점까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장례를 치른 뒤 다시 가족의 유해가 발견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재수색에는 항철위를 비롯해 경찰·소방·군·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제주항공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 합동지휘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하루 평균 200~3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수색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공항 외곽 지역을 우선 마

무리한 뒤 공항 내 둔덕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이후 수색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가족들과 협의해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

유가족과의 소통도 수색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관계기관은 수색 범위를 사전에 설명하고 그리드별 수색이 끝나면 유가족에게 확인받은 뒤 완료 처리한다. 매일 수색 상황도 브리핑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관계기관·유가족 수시회의에서는 기상 여건이 뒷받침될 경우

9월 말까지 재수색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10월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참사 발생 1년8개월, 유가족들에게 무안공항은 아직도 가족을 떠나보낸 마지막 장소이자, 가족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현장이다. 장례가 끝났다고 믿었던 순간조차 끝이 아니었던 유가족들의 시간은 지금도 무안공항에서 이어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 승소

법원 “생명권·재판받을 권리 침해…위자료 지급”

법원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이효은 재판장은 A씨 등 1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을 등의 위자료 기준을 근거로 상속관계에 따라 최소 690만원부터 최대 3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

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의 봉기를 계기로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해 구례·광양·보성·고흥·영암 등지의 민간인들이 반군 또는 협력자로 지목돼 희생됐다.

희생자는 1949년 2월께 경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위원회는 문헌자료와 참고인 조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2024년 10월17일 해당 인물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국가의 진

압 과정에서 반군 또는 반군 협력자로 지목된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희생자가 겪은 피해와 유족들의 장기간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이어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광주, 가뭄·폭염 농축산 피해 확산…긴급 급수 총력

농작물 103.7ha 피해·가축 32만1000마리 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과 폭염으로 농축산 분야 피해가 확산하자 긴급 급수와 농가 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가뭄과 폭염에 따른 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17개 시군구에서 총 103.7ha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벼 32.3ha로 전체 재배면적의 0.02%, 콩은 21.2ha로 재배면적의 0.17%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19개 시군 218개 농가에서 가축 32만1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이날 현

제 738.2mm로 평년 900.1mm의 82.0% 수준에 그쳤다. 지역 저수지 3206곳의 평균 저수율도 44.1%로, 평년 64.7%의 68.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양수장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소방차와 산해 불진차, 급수차 등 가용 장비도 동원해 용수 부족 지역에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 5일 정부에 가뭄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양수기의 면세유 추가 배정과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대상 기종 확대를 건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관할 농·축협에 피해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과 함께 피해 농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도 강화했다. 농가를 대상으로 엽면시비와 약제 살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축산농가에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보급한다. 적정 사육밀도 유지를 위한 사육 마릿수 10% 감축과 조기 출하도 유도해 가축 폐사를 줄일 방침이다.

폭염에 따른 농업인 인명피해 예방에도 나섰다. 지난 9일 현재 전남광주지역 농업인 운열질환자는 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32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